



**삼육식품, 완주 운주면 수재민들에 '꿀잠 두유' 기부**

삼육식품에서 완주군 운주면 수재민들에게 두유 216박스를 기부했다. 지난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육식품은 수해피해를 입은 운주면 수재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올해 새로 출시한 '꿀잠' 두유를 기부했다. 개수로는 5,000개가 넘는 양이다. 삼육식품 관계자는 "꿀잠 두유는 L-테아닌과 감태혼 함유로 '이연', '바그네슘' 등이 함유돼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신제품으로 수재민분들과 피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수 운주면장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건강까지 생각해 줘서 감사하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무주읍 주민 하승엽씨, 장학금 500만원 기탁**

무주군은 지난 2일 무주읍 주민 하승엽 씨(83)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을 직접 찾은 하 씨는 "무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주민으로서 한창 공부할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었다"라며 "장학금이 학생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학생들을 향한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무주에서 공부해도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갖춘 아이들을 만들고 오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저경력 교육행정직원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우)에서는 지난 2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8급 이하 교육행정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저경력 교육행정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행정 실무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교육청과 학교 근무 직원간의 소통 협력의 조지문화 형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급여, 불복, 재산 학교회계 실무와 업무 정보 교류 및 협력 과정으로 진행했다.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저경력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적응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정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우울 극복 프로그램' 성료**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울 극복 프로그램(미술치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1층 교육실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총 5회에 걸쳐 28명의 시민이 참여해 미술적 표현을 통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여자들은 전문 미술치료사의 지도 아래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미술치료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발견하고 큰 자유의 힘을 얻었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동의 권리 보호 · 긍정 양육 문화 조성'**

**유영대 도립국악원장,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동참**

유영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차별 없이 양육하는 방법을 말하는 '긍정 양육의 문화 확산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다. 캠페인은 첫 주자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이 캠페인에 참여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 원장은 김호성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지



목을 받아 참여했다. 유 원장은 "아동 존중과 이해,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도립국악원도 어린이예술단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로 꿈 꾸고 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이경윤 이사장을 추천했다. /이만호 기자



**이미옥 진안군의회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지난 2일 이미옥 의원에 대한 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정봉사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미옥 의원은 특유의 섬세함으로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민물개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와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 촉구'등을 건의하며 진안군민의 권리 신장에 힘써 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미옥 의원은 "진안군의회 동료의원들의 응원과 배려로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안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남원시, 공공서비스 신규 임기제 공무원 역량 강화**

남원시는 지난 1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와 읍면동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임기제(간호·복지)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 내부 슈퍼비저로 위촉된 희망복지지원팀장 및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길라잡이가 되어,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 제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교육으로, 이론 집합교육과 해당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전산교육과 병행해 추진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신규 공무원들의 찾



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임기제 공무원(간호·복지) 17명이 해당 읍면동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복지 위기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보건소, '4060 갭년기 건강교실' 참여자 모집**

정읍시 보건소가 5일부터 16일까지 아름다운 4060 갭년기 건강교실 3기'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갭년기 증상의 예방과 개선에 관심이 있는 40~60대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시는 참여자 모집 후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화~목요일 보건소 교육실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갭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훈 체조·건강체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우울감 회복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원예치료, 아로마테라피, 차문화체험 등)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시작 전·후 참여자들의 골다공증 간 이검사와 자각전단 및 기초 건강검사 등을 통해 갭년기 증상을 파악해 갭년기 극복에 힘을 보태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년 세대가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대처하고 건강한 노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도동동, '도동사랑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3층 회의실에서 도동사랑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소년자 도동동장 및 도동사랑 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봉사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발적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눔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위해 구성되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학생들에게 봉사단의 활동 수칙 및 기본지침을 비롯한 자원봉사 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봉사단 학생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소년자 도동동장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하며, "이번 기회로 청소년들이 나눔과 참



봉사의 의미를 알아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트로트 가수 김덕건, 고창 진안군에 고창사랑기부**

진안군은 지난 2일, 가수 김덕건씨가 고창사랑기부제(기부금 100만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덕건 씨는 "고창 진안군에 좋은 기회를 통해 고창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다. 기부금이 진안군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언제나 진안군을 마음 가까이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김덕건씨는 진안군 주천면 무리리 출생으로 2019년 싱글앨범 '돌이외줘'로 데뷔 후 '강천산 도라지' 등의 앨범을 내며 트로트 가수로 활약하고 있다. 전준성 군수는 "고창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가수 김덕건 씨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과 꾸준한 인연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와 30%의 담세액 혜택이 제공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주천면, 소외계층 대상 반찬 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 주천면은 관내 소외계층 25가구에 대한 반찬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 1회 새마을부녀회로 구성된 21명의 자원봉사단이 반찬을 만들어 직접 배달하는 농촌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지리산 일변지 행복나눔터에 위탁해 추진, 불편한 몸으로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중장년층 1인 가구에 이번 반찬을 지원해 영양 관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한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 주민은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맛있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배달까지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라며 행복나눔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자원봉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반찬을 지원해 줌으로써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동동, 소통 간담회 진행**

남원시 도동동은 8월의 첫 시작을 시민의 결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며 앞으로 2주간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22개 경로당을 방문해 국제드론제전 등 각종 시정 홍보와 불편 사항 현장 점검 등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해 접수된 각종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운영질환 피해 예방 안전교육 및 무더위쉼터 시설점검, 안내판 등을 함께 점검하여 운영질환자 발생 제로화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소년자 도동동장은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인 현안 대응과 실효성 있는 시정정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